

일부 전문대학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구강 증상발현에 관한 연구

신선행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과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oral symptoms in health college students

Seon-Haeng Sh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ahmyook Health University

Received : 2 May, 2014
Revised : 19 July, 2014
Accepted : 11 August, 2014

Corresponding Author

Seon-Haeng Sh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ahmyook Health University
82 Mangwoo(St), Dongdaemun-gu
Seoul 130-711, Korea.
Tel : + 82-02-3407-8622
+ 82-10-5875-7224
Fax : + 82-02-3407-8639
E-mail : haeng5355@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oral symptoms in health college students.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275 health college students in Seoul from October 7 to November 29, 2013.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4.0 program.

Results : Female students tended to have higher employment stress oral symptoms than male. The higher the employment stress was, the more oral symptoms were.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trait, environmental stress and oral symptoms.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ongue, teeth, gum, temporomandibular joint(TMJ) were influenced by the employment stress.

Conclusions :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environmental stress in the students. The students themselves must try to overcome the agonal condition by diverting stress into positive way of living.

Key Words : college student, employment stress, oral symptoms

색인 : 구강증상, 대학생, 취업 스트레스

서론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긴장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¹⁾. 이러한 취업스트레스는 현대사회의 여러 조직 가운데서 학교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2013년도 교육통계연보²⁾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70.7%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인 반면 청년고용률은 아직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공무원 시험, 자격증 취득, 대기업 입사시험 등 구직을 위한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9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15~29세 인구 중 취업을 준비하는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9%에서 10.1%로 3.2% 포인트 늘었다³⁾. 따라서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난이 극심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노인인구 증가로

Copyright©2014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KSDH is available at <http://www.jksdh.or.kr/> pISSN 2287-1705 / eISSN 2288-2294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삼육보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인해 대학 졸업자의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한 두 학기씩 졸업을 늦추거나 학원에 다니면서 다시 취업의 기회를 엿보거나 취업이 용이한 학과로 편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대학은 교수 문화와 대학생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발전을 위한 특수 사회집단으로 새로운 학문, 사상, 전문기술을 창조하는 동시에 고등교육을 통하여 지식인을 사회에 배출하여 이들이 여러 분야의 사회활동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대학은 전공 여부를 떠나서 취업의 전제조건이자 지위집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된 경향이 있다⁴⁾. 대학생들은 국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소양, 인재를 쌓는 진로의 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학생들 중에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가지게 된다⁵⁾.

보건계열 학생들은 다양한 교내실습과 의료기관 현장실습을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강조하는 전문 기술직에 대한 의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시험을 비롯하여 전문직에 필요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라는 당면과제로 취업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원인이 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반응은 각종 병리적인 현상을 일으켜 여러 가지 구강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⁶⁾.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티졸 수준은 증가하게 되며⁷⁾, 만성적 스트레스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성된 코티졸은 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을 일으키고 면역기능 저하, 피로 생리불순, 정력 감퇴 등을 유발하며 무기력증에 빠지게 한다⁸⁾.

스트레스가 주원인인 구강병소로는 편평태선과 아프타성 구내염이 있고, 스트레스가 관여된 병소로는 다형홍반, 양성 점막유천포창 및 지도상설이 있으며⁹⁾, 스트레스가 소인인 병소로는 재발성 단순포진 구내염과 급성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 등이 있다¹⁰⁾. 또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구강증상 경험 위험비는 증가하며¹¹⁾, 건강실천지수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¹²⁾. 일상적 스트레스는 그 자체만으로는 현저한 심각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으나 누적된 경험은 매우 심각한 부적응을 야기 시키고 구강건강에도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¹³⁾. 최근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구강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 분야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급변화로 인하여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생들이 겪는 취업 스트레스가 구강 질환 및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10월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서울,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전문대학 보건계열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선정 하였으며 총 285명 가운데 자료가 미비한 10명을 제외한 총 275명(남자: 16명, 여자: 259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7문항, 취업스트레스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¹⁴⁾을 기초로 하여 황⁵⁾이 개발한 설문지를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내용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문항 평가방법은 학업, 성격, 학교환경, 가족환경 4개영역에 각 5문항씩 구성하여 리커트(Likert)의 5점 등간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취업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주관적인 구강증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박¹⁵⁾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입술·볼 4문항, 혀 6문항, 치아·잇몸·악관절 5문항, 구강외 안면 5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별 응답은 '예' 1점, '아니오' 0점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 구강증상 문항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test를 실시한 결과 각각 0.89, 0.8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취업스트레스, 구강증상의 전반적 경향을 알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구강증상 각각의 차이분석은 독립표본 평균검정을 하였다. 취업스트레스가 구강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N(%)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Gender	Male	16(5.8)
	Female	259(94.2)
Grade	1	78(28.4)
	2	82(29.8)
	3	115(41.8)
Religion	Yes	83(30.2)
	No	192(69.8)
Smoking	Yes	7(2.5)
	No	268(97.5)
Alcohol	Yes	95(34.5)
	No	180(65.5)
Exercise	Yes	141(51.3)
	No	134(48.7)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여자 94.2%, 남자 5.8% 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28.4%, 2학년 29.8%, 3학년 41.8% 이었다. 종교 유무에서는 '있다' 30.2%, '없다' 69.8%를 나타내었고, 흡연은 '예' 2.5%, '아니오' 97.5%, 음주 '예' 34.5%, '아니오' 65.5%, 일주일 동안의 운동 여부에서는 '예' 51.3%, '아니오' 48.7% 이었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와 구강증상발현

본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와 구강증상발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스트레스는 평균 2.6±0.5이고 하부영역 요인으로 성격스트레스 2.8±0.7, 학교스트레스 2.6±0.7, 가족스트레스 2.5±0.8, 학업스트레스 2.5±0.6으로 성격스트레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강증상발현은 5.8±3.8이고 하부영역의 구강의 안면 3.0±1.6, 치아·잇몸·악관절 1.1±1.3, 입술·볼 1.0±1.1, 혀 0.5±1.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남자 2.2±0.5, 여자 2.6±0.5로 여자에서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하위영역 요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업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는 남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성격 스트레스는 남자 2.2±0.7, 여자 2.8±0.7(p<0.01), 학교환경 스트레스에서는 남자 2.2±0.7, 여자 2.6±0.7(p<0.05)로 나타나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아 성별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 취업스트레스는 1학년 2.5±0.5, 2학년 2.8±0.5, 3학년 2.5±0.5로 나타나 학년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사후검정결과 1, 3학년보다 2학년에서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하위영역

Table 2. Distribution of employment stress and oral symptoms of study population N=275

Variables	Substructure	Mean±SD
Employment stress		2.6±0.5
	Schoolwork	2.5±0.6
	Characters	2.8±0.7
	School environment	2.6±0.7
	Family environment	2.5±0.8
Oral symptoms		5.8±3.8
	Lip·Cheek	1.0±1.1
	Tongue	0.5±1.0
	Teeth·Gum·TMJ	1.1±1.3
	Extraoral and facial	3.0±1.6

Table 3. Employment stress of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Mean±SD

Variables	No.(%)	Employment stress	Schoolwork	Characters	School environment	Family environment
Gender						
Male	16(5.8)	2.2±0.5	2.3±0.6	2.2±0.7	2.2±0.7	2.2±0.6
Female	259(94.2)	2.6±0.5*	2.5±0.6	2.8±0.7**	2.6±0.7*	2.5±0.8
Grade						
1	78(28.4)	2.5 ^b ±0.5	2.5±0.5	2.6±0.7	2.5±0.7	2.4 ^b ±0.8
2	82(29.8)	2.8 ^{a,c} ±0.5*	2.6 ^c ±0.6**	2.9±0.6	2.8±0.8*	2.7 ^a ±0.7*
3	115(41.8)	2.5 ^b ±0.5	2.3 ^b ±0.6	2.8±0.8	2.5±0.7	2.5±0.8
Religion						
Yes	83(30.2)	2.6±0.6	2.5±0.6	2.7±0.8	2.6±0.8	2.5±0.9
No	192(69.8)	2.6±0.5	2.5±0.6	2.8±0.7	2.6±0.7	2.5±0.8
Smoking						
Yes	7(2.5)	2.4±0.4	2.2±0.5	2.6±0.5	2.5±0.7	2.5±0.7
No	268(97.5)	2.6±0.5	2.5±0.6	2.8±0.7	2.6±0.7	2.5±0.8
Alcohol						
Yes	180(65.5)	2.6±0.5	2.5±0.6	2.8±0.7	2.6±0.7	2.5±0.7
No	95(34.5)	2.5±0.6	2.4±0.6	2.7±0.8	2.5±0.7	2.5±0.9
Exercise						
Yes	141(51.3)	2.6±0.5	2.4±0.6	2.8±0.7	2.5±0.7	2.5±0.8
No	134(48.7)	2.6±0.6	2.5±0.6	2.8±0.7	2.7±0.7	2.5±0.8

p-value by t-test, ANOVA

* p<0.05, ** p<0.01, *** p<0.001

^{a,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at α=0.05.

Table 4. Oral symptoms of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Mean±SD

Variables	No.(%)	Oral symptoms	Lip · Cheek	Tongue	Teeth · Gum · TMJ	Extraoral and facial
Gender						
Male	16(5.8)	3.7±2.5	0.8±0.9	0.0±0.0	0.5±0.8	2.4±1.7
Female	259(94.2)	5.9±3.8*	1.0±1.1	0.5±1.0***	1.2±1.3**	3.1±1.6
Grade						
1	78(28.4)	5.7±3.4	0.9±1.0	0.5±0.9	1.1±1.1	3.1±1.6
2	82(29.8)	5.6±4.2	1.1±1.2	0.5±1.1	1.0±1.3	2.8±1.7
3	115(41.8)	5.9±3.7	1.0±1.1	0.4±0.9	1.2±1.4	3.1±1.5
Religion						
Yes	83(30.2)	5.6±3.8	1.0±1.1	0.5±1.0	1.0±1.2	3.0±1.1
No	192(69.8)	5.8±3.7	1.0±1.1	0.5±1.0	1.2±1.3	3.0±1.1
Smoking						
Yes	7(2.5)	6.4±6.5	1.4±1.5	1.0±2.2	1.7±2.0	2.2±2.1
No	268(97.5)	5.8±3.7	1.0±1.1	0.5±0.9	1.1±1.3	3.0±1.6
Alcohol						
Yes	180(65.5)	5.9±3.7	1.0±1.1	0.5±0.9	1.1±1.3	3.1±1.5
No	95(34.5)	5.6±3.9	1.0±1.0	0.5±1.3	1.1±1.2	2.9±1.7
Exercise						
Yes	141(51.3)	5.9±4.0	1.1±1.1	0.5±1.0	1.1±1.4	3.0±1.6
No	134(48.7)	5.7±3.5	1.0±1.0	0.5±1.0	1.1±1.2	3.0±1.6

p-value by t-test, ANOVA

* p<0.05, ** p<0.01, *** p<0.00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oral symptoms

Variables	Oral symptoms	Lip · cheek	Tongue	Teeth · Gum · TMJ	Extraoral and facial
Employment stress	0.176**	0.069	0.190**	0.191**	0.084
Schoolwork	0.091	0.050	0.178	0.079	0.001
Characters	0.202**	0.118	0.125*	0.183**	0.157**
School environment	0.052	0.023	0.116	0.107	-0.056
Family environment	0.198**	0.028	0.181**	0.218**	0.147*

*p<0.05, **p<0.01

역 요인 분포를 살펴보면, 학업 스트레스(p<0.01), 학교환경 스트레스(p<0.05), 가족환경 스트레스(p<0.05)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결과 학업 스트레스에서는 2학년보다 3학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환경 스트레스에서는 1학년보다 2학년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종교 유무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분포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요인 중 성격 스트레스에서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약간 낮았으나 두 집단 간에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흡연 유무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분포는 비 흡연 집단이 흡연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1주일 운동여부와 취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스트레스에서 운동집단이 비 운동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약간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3>.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증상발현

성별에 따른 구강증상발현은 남자 3.7±2.5, 여자 5.9±3.8 로 여자에서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하위영역 요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입술·볼, 기타 안면부는 남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혀는 남자 0.0±0.0, 여자 0.5±1.0(p<0.001), 치아·잇몸·악관절은 남자 0.5±0.8, 여자 1.2±1.3(p<0.01)로 나타나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아 성별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 구강증상발현은 1학년 5.7±3.4, 2학년 5.6±4.2, 3학년 5.9±3.7이었으며, 하위영역요인에서는 치아·잇몸·

악관절, 구강의 안면에서 3학년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 흡연, 음주, 운동 유무에 따른 구강증상 분포는 각각 두 집단간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Table 4>.

5. 취업스트레스와 구강증상발현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r=0.176), 하위영역의 성격 스트레스(r=0.202), 가족환경 스트레스(r=0.198)와 구강증상발현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 취업스트레스와 구강증상 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혀(r=0.190), 치아·잇몸·악관절(r=0.191)과 양의 상관성을 보여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혀, 치아·잇몸·악관절 부위의 구강증상발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6.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취업스트레스가 구강증상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모형 설명력은 5.3%로 나타났다. 선정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취업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혀, 치아·잇몸·악관절(p<0.05)이었다. 즉,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혀, 치아·잇몸·악관절부위의 발현이 높았다<Table 6>.

Table 6. Regression analysis for employment stress in study population

Variables	Employment stress				
	B	SE	β	t	p-value
Lip · cheek	-.030	.037	-.057	-.800	.424
Tongue	.088	.041	.152	2.128	.034
Teeth · gum · TMJ	.063	.031	.141	1.998	.047
Others	.003	.024	.007	.105	.916

R² = 0.053 F = 3.743 P = 0.006

총괄 및 고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직업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¹⁾.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비롯된 사회적 불안정은 높은 실업률과 함께 대학사회까지 파급되어 대학생들의 학업, 진로, 취업영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정도와 관련 변인으로 구강증상 발현을 제시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는 5점 만점 중 평균 2.6점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이 유사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대상의 김과 허¹⁶⁾의 성적과는 유사하였으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과 김¹⁷⁾의 연구결과 2.2보다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 학생의 지역, 학년, 학과, 연구도구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취업스트레스 하부영역의 성격, 학업스트레스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학생 스스로가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적성 검사나 진로상담 서비스 및 취업관련 교육을 비롯하여 취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이 증가할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⁵⁾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이러한 점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여성 취업문이 더 좁다는 점과 일부 학과 특성상 여학생의 비율이 높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국가고시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나타나는 비특이적인 반응으로 정의되며, 생리적으로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⁸⁾. 따라서 스트레스는 면역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구강내의 다양한 병소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서¹⁹⁾,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등은 대학생들의 취업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신체적 증상과 질병, 심리적 부작용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²⁰⁾.

오늘날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측두하악 장애, 구강점막 질환 등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²¹⁾. 구강과 안면은 생존과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구조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²²⁾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구강병소 발생 부위로는 혀, 구강저, 협점

막, 치은, 구개, 입술, 치아, 구강점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생부위와 구강질환에 따라 다양한 발현 증상을 나타낸다. 입술 주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순포진 구내염과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스트레스가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질환으로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문제가 야기될 경우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²³⁾.

본 연구에서 증상 부위에 따른 발현빈도의 비교에서는 구강의 안면부 증상이 입술·볼, 혀, 치아·잇몸·악관절 부위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성별간 차이에서는 치아·잇몸·악관절, 혀 등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박¹⁵⁾, 오²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혀는 구강 내 점막 중 가장 쉽게 관찰이 가능한 부위이고 직접 미각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증후가 있을수록 혀의 증상이 특히 민감하게 작용한다. 혀에 나타나는 흔한 증상으로는 혀의 궤양, 캔디다증을 비롯한 염증, 설태, 미각 이상, 구강작열감증후군, 통증 등이 있다. 오와 한²⁵⁾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면역 저하, 정서적 긴장, 스트레스에서 혀의 염증이나 설태 발현빈도가 높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혀 부위의 구강증상발현은 성별간의 차이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여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은 임상적 진단이 시행되지 않은 단순 설문지만의 조사로 인하여 혀의 병변 종류와 정도를 추정하지는 못했으므로 보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구강암, 식도암 등 각종 암과 관상동맥질환, 위궤양, 치아우식이나 치주조직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²⁶⁾.

흡연여부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와 구강증상발현빈도는 흡연군에서 입술·볼 부위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 홍²⁷⁾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스트레스 해결방안 중 흡연이라는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흡연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기관이 구강이기 때문에 흡연이 구강조직에 나쁜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혀, 치아·잇몸·악관절 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여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증상발현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주관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 학과별 교육에서 취업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로적성 검사, 진로상담 서비스 및 취업관련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현장에 취업 전담부서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학교행정·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보다 나은 학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취업에 대한 주체적 책임은 학생들이

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 배려, 사랑이 건강을 비롯한 구강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구강증상에 대한 연구도구 차이로 인한 정확성 결여,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요인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점, 단면연구인 점 등으로 인해 취업스트레스 관련요인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얻기는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보건계열 대학생들이 겪는 취업 스트레스와 구강증상발현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3년 10월7일부터 11월 29일 까지 서울,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전문대학 보건계열 재학생 27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취업스트레스, 구강증상발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대상자의 전체 취업스트레스($r=0.176$), 성격스트레스($r=0.202$), 가족환경스트레스($r=0.198$)와 구강증상발현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 취업스트레스와 구강증상발현 항목별 요인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혀($r=-0.190$), 치아·잇몸·악관절($r=0.191$)과 양의 상관성을 보여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혀, 치아·잇몸·악관절 부위의 구강증상발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취업스트레스, 구강증상발현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2.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구강증상발현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3.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와 구강증상발현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4. 회귀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혀, 치아·잇몸·악관절이었다. 즉,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혀, 치아·잇몸·악관절 구강증상발현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진로적성 검사, 진로상담 서비스 및 취업관련 교육과 학교행정·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보다 나은 학문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산학협력체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취

업에 대한 주체적 책임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 사회, 학교,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 배려, 사랑이 구강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References

1. Kim HJ. The relationship among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anxiety and physical symptom in university students[Master's thesis]. Daegu: Univ. of Kyungpook, 2004.
2.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educational statistic yearbook. Seoul: Kedi Publishing Co; 2013: 252.
3. Jemin newsletter[internet]. [cited 2014 April 16]. Available from: http://www.jemin.com/news/article_View.html?idxno=331647.
4. Lee H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and their mental health[Master's thesis]. Kongju: Univ. of Kongju, 2000.
5. Hwang SW.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Master's thesis]. Pusan: Univ. of Dong-A, 1998.
6. Kim SA, Kim S, Yun MS, Hwang SJ, Kim KS, Kim DR, et al. Contemporary preventive dentistry. 1st ed. Seoul: Daehannarae Publishing Co; 2011: 14.
7. Dahlqren A, Kecklund G, Akerstedt T. Different levels of work-related stress and the effects on sleep, fatigue and cortisol. Scand J Work Environ Health 2005; 31(4): 277-85.
8. Grossi G, Perski A, Ekstedt M, Johansson T, Lindstrom M, Holm K. The morning salivary cortisol response in burnout. J Psychosom Res 2005; 59(2): 103-11.
9. Redman RS, Vance FL, Gorlin RJ, Peaqler FD, Meskin LH. Psychological component in the etiology of geographic tongue. J Dent Res 1966; 45(5): 1403-8.
10. Spruance S, Aoki FY, Tying S, Stanberry L, Whitley R, Hamed K. Short-course therapy for recurrent genital herpes and herpes labialis. J Fam Pract 2007; 56(1): 30-6.
11. Choi YJ. Factors associated with disease Symptoms of oral cavity in Korean youth[Master's thesis]. Seoul: Univ. of Chung-Ang, 2012.
12. Kim YA. The relationship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health behavior of adolescence[Master's thesis]. Seoul: Univ. of Hanyang, 2000.
13. Cha HJ. The effects of job stress and daily hassles of office workers on internet addiction[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ookmyung Women, 2010.
14. Shepherd M, Cooper B, Brown AC, Kalton GW. Psychiatric illness in general pract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ublishing Co; 1966: 14.

15. Park MS, A study on the fear, anxiety, depression and the stress symptoms in orofacial region in dental outpatients[Master' s thesis], Iksan: Univ. of Wonkwang, 1998.
16. Kim SY, Huh S, Research on employment stress and countermeasures of the gradulators-to-be who majored in social work, Korean J of Social Welfare Educ 2009; 9(1): 23-51.
17. Kim SJ, Kim HH, Impa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on employment stres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1): 75-84.
18. Jun YH, Hong JP: Stress and oral disease, Korean Soc Stress Med 1995; 3(1): 59-72, 1995.
19. Kim HJ, Relationships among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anxiety and physical symptom in university students[Master's thesis], Daegu: Univ. of Kyungpook National, 2004.
20. Han G, The influence of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on job search stres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Master's thesis], Iksan: Univ. of Wonkwang, 2004.
21. Kim SB, Jeong JY, Kim C, Kim YJ, Park MS, Consideration for the importance of diseases associated with oral medicine by analyzing the dental cyber consultation, Korean Acad Orofac Pain Oral Med 2008; 33(1): 312-22.
22. Suh BJ, Effects of orofacial pain experience on psychological symptoms under emotional stress, Korean Acad Orofac Pain Oral Med 1999; 24(2): 107-15.
23. Woo SB, Lee FK, Oral recrude scent herpes simplex virus infection,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l 1997; 83(1): 239-43.
24. Oh Min-Jung, An epidemiologic study on the frequency of stress symptoms in the oro facial region[Master' s thesis], Iksan: Univ. of WonKwang, 1997.
25. Oh MJ, Han KS, An epidemiologic study on the frequency of stress symptoms in the orofacial region, J Wonkwang Dent Res Inst 1998; 8(1): 73-88.
26. Yang JY, The effects of smoking on oral environment[Master's thesis], Seoul: Univ. of Chung-Ang, 2001.
27. Hong MH, Influence of daily stress to oral symptoms among adults, J Dent Hyg Sci 2013; 13(1): 20-8.